



특별기획 II 한국 대학의 경쟁력, 진단과 처방

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대학경쟁력과 대학평가

이 영 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I.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기에 있어 국가의 핵심 지식 인프라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의 일류 기업, 인력들은 우수한 대학이 소재해 있는 혁신의 중심지(centers of excellence)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대학의 역할과 운용방식, 시장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상아탑'으로 상징되던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과 학문 간의 연계가 활성화되고 국제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유학 및 현지 진출이 늘어나는가 하면 대학 간, 대학과 외부기관과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의 대학혁신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이 대학의 근원적인 개혁 내지 전환을 꾀하고 있고, 후발국 역시 대학의 초고속 발전과 구조 조정을 위해 각종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이 변하면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대학을 기점으로 한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플랜을 수립하고 TOP 30(전체 대학의 5%)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는 과단성 있는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학문 연구나 기술 개발에서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 하에서 학문 연구의 국제경쟁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철저히 연결시키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만대학을 세계 100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아시아 지역 교육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World Class Campus Program’을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 10개 대학 유치를 위한 10년 계획(1998~2007)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국제화 교육에 주력하면서 연간 1조 5백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 세계로 시야를 확대하기 전에 가까운 아시아 주변국만을 둘러보아도 글로벌 대학경쟁력 제고는 세계적인 조류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조류에 맞춰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교육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를 앞서가는 일본과 우리를 뒤쫓아 오는 중국의 글로벌 대학경쟁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중국·일본이 나름대로 글로벌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주요 고등교육 개혁 방안과 그 기제로 대학평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대학경쟁력의 현주소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글로벌 대학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평가에는 영국의 '더 타임즈(The Times) 대학평가', 중국의 '상하이 교통대의 세계 500대 대학 선정 평가', 그리고 미국의 '뉴스위크(NewsWeek)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 선정 평가'가 있다. 더 타임즈(The Times) 대학평가에서는 각국 3,000여 명의 학자들이 매긴 동료평가, 다른 대학에서 인용된 연구 논문 편 수, 교수 대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수, 외국인 교수 수, 세계 주요 기업의 채용 선호도(신설)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상하이 교통대의 세계 500대 대학 선정 평가에서는 교육의 질(동문의 노벨상 및 Fields Medals 수상 실적), 전임교수의 질(전임교수의 노벨상 및 Fields Medals 수상 실적, 20개 학문 분야의 피인용 연구자 수), 연구 실적(Nature and Science 게재 논문 실적, SSCI와 SCI 인용 논문 수), 대학의 규모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그리고 뉴스위크(NewsWeek) 선정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는 논문 인용 연구자 수, 과학 전문지인 Nature and Science 게재 논문 수, SSCI 논문 인용 지수, 예술 및 인문과학(A&HCI) 논문 인용 지수, 외국인 교수 수, 외국인 학생 수, 교수당 논문 인용 수, 학생 대 교수 비율, 도서관 보관 도서 규모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2006년 영국의 더 타임즈, 중국의 상하이 자이통 대학, 미국의 뉴스위크 등이 발표한 한국·중국·일본의 대학들에 대한 글로벌 대학경쟁력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더 타임즈(The Times) 평가에서는 일본은 11개 대학(Tokyo : 19위, Kyoto : 29위, Osaka : 70 등), 중국은 5개 대학(Beijing : 14위, Tsing Hua : 28위 등), 한국은 3개 대학(서울대 : 63위 등)이 각각 글로벌 200대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상하이 교통대의 세계 500대 대학 선정 평가에서는 일본은 31개 대학, 중국과 한국은 9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150위권 내에 9개 대학(Tokyo : 19위, Kyoto : 22위, Osaka : 61위, Tohoku : 76위, Tokyo Inst Tech : 89위, Nagoya : 98위, Hokkaido/Kyushu/Tsukuba : 102-150)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에 중국과 한국은 150위권 내에 포함된 대학이 없었다. 151-200위권에는 중국의 칭화대와 한국의 서울대가 선정되었다. 201-500위권에는 일본 22개 대학, 한국과 중국은 공히 9개 대학이 선정되고 있다.

뉴스위크(NewsWeek) 선정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는 일본은 5개 대학(Tokyo 16위, Kyoto 29위, Osaka 57위, Tohoku 68위, Nagoya 96위)이 선정되었지만 한국과 중국은 한 개의 대학도 선정되지 못했다. 2006년 뉴스위크의 글로벌 100대 대학평가에서 일본은 미국(45개 대학 선정), 영국(14개 대학



〈표 1〉 동아시아 국가 대학의 글로벌 대학 순위

구분	세계 랭킹	일본		중국		한국	
		대학명 및 대학 수		대학명 및 대학 수		대학명 및 대학 수	
The Times 평가	50위 이내	Tokyo(19/3) Kyoto(29/7)	2	Beijing(14/1) Tsing Hua(28/6)	2		1
	50~100	Osaka(70/20)	1			서울대(63/18)	
	101~150	Tokyo Inst. Technology(118/28) Keio(120/30), Kyushu(128/31) Nagoya(128/31) Hokkaido(133/33)	5	Fudan(116/27)	1	고려대(150/36)	1
	151~200	Waseda(158/39) Tohoku(168/43) Kobe(181/46)	3	China Sci & Technol(165/42) Shanghai Jiao Tong(179/44) Nanjing(180/45)	3	과학기술대(198/아시권 50위 등위)	1
상하이 자이퉁 대학 평가	50위 이내	Tokyo(19/1) Kyoto(22/2)	2				
	51~100	Osaka(61/5) Tohoku(76/6) Tokyo Inst Tech(89/8) Nagoya(98/9)	4				
	101~150	Hokkaido, Kyushu, Tsukuba(102-150/10-19)	3				
	151~200			Tsing Hua(151-200/20-24)	1	서울대(151-200/20-24)	1
	201~300	Hiroshima, Keio, Kobe (201-300/25-40)	3	Peking, Shanghai Jiao Tong, Sci & Tech China, Zhejiang(201-300/25-40)	4	과학기술대, 연세대(201-300/25-40)	2
	301~400	Waseda 등(301-400/64-92)	8	Fudan, Nanjing(301-400/64-92)	2	고려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301-400/64-92)	3
	401~500	Tokushima 등(401-500/64-92)	11	Jilin, Shandong(401-500/64-92)	2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401-500/64-92)	3
NewsWeek 글로벌 100 대학		Tokyo(16) Kyoto(29) Osaka(57) Tohoku(68), Nagoya(96)	5				

자료 : <http://ed.sjtu.edu.cn/ranking.htm>. The Times(2006). Higher World University Rankings.

NewsWeek 선정 세계 100대 대학 순위 (한국대학신문, 2006년 8월 10일자)

- * The Times 평가의 ()는 세계 랭킹/유럽&미국의 대학을 제외한 대학 순위
- * 상하이 자이퉁 대학 평가의 ()는 세계 랭킹/아시아 국가의 대학 순위
- * NewsWeek 글로벌 100 대학의 ()는 세계 대학 순위

선정), 호주(6개 대학 선정)에 이어 스위스와 캐나다와 함께 세계에서 4번째로 글로벌 대학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평가되었다.

2006년 영국의 더 타임즈, 중국의 상하이 자이퉁대학, 미국의 뉴스위크 등의 대학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월등한 글로벌 대학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비슷하나, 중국이 한국에 비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더 타임즈 평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Beijing대는 일본의 Tokyo대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Tsing Hua대 역시 일본의 Kyoto대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서울대보다 그 순위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Ⅲ. 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 노력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 오면서 아시아 지역 내 경쟁도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근거리에 있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면에서 경쟁과 협력의 긴박한 다이내믹스(dynamism)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고급 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한·중·일 3국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변수라 할 핵심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서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학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중국·일본 3국이 저마다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학개혁의 성과는 향후 글로벌 대학경쟁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중국·한국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대학개혁 정책과 방향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일본의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 노력

일본의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은 2000년 12월 22일 교육개혁국민회의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2001년 1월 25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1세기 교육신생플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21세기 교육신생플랜'에서 문부과학성은 '대학·대학원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 '대학의 경쟁적 환경의 정비', '대학에 적합한 학습을 촉진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 3대 대학개혁 방안을 표명했다. 실제로 이와 같은 3대 개혁 과제는 2007년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고등교육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3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국립대학 법인화'와 일본판 BK21 사업이라 할 수 있는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日本文部科學七省, 2006).

2001년 6월 우선 국립대학에 대한 개혁을 천명한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 혁신을 위하여 국립대학의 재편성·통합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민간적 발상의 경영 수법을 도입하는 법인화 전략을 구상했다. 일본 대학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업이 국립대학 법인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의 국립대학을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통하여 2004년 4월 이후 101개의 국립대학을 89개 국립대학 법인으로 재편성·통합하였다. 또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을 통하여 기존의 국가 예산제도와 국가 공무원제 중심의 행정 조직에서 탈피하여 교육 연구를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는 반 민영화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자주성을 보장하는만큼 엄격한 평가도 받도록 하였다. 즉, 각 국립대학 법인은 6년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목표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중기 목표 및 중기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6년 주기로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등 제3자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식으로 민간 경영 방식을 도입한 것은 국립대학



법인의 국민에 대한 교육적 투명성과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6).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은 일본판 BK21 사업이다. 원래 일본의 COE 프로그램은 1992년 7월 학술심의회 '21세기를 전망하는 학술 연구의 종합적인 추진 대책에 대해'라는 답신에서 시작되었다. COE 프로그램은 창조성이 풍부한 세계 최첨단의 학술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며, 수준 높은 연구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간 최첨단 연구정보를 교환하면서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02년 이후 새롭게 정비되어 추진되고 있다. COE 프로그램에 의한 재정지원 규모는 2002년 182억 엔, 2003년 334억 엔, 2004년 367억 엔, 2005년 382억 엔 등으로 해마다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 화학·재료과학, 정보·전기·전자, 의학, 수학·물리·지구과학, 기계·토목·건축, 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로 매년 신규 사업단 선정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별 신규 사업단 선정은 '인재 양성', '지식창출',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경쟁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日本 經濟生産性, 2003). 한마디로 COE 프로그램은 제 3자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경쟁원리에 의해 각 대학의 우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교육·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원 교육을 강화해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함양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대학경쟁력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본 대학은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우수 대학이 선정되는 등 학문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의 거점을 형성해 가고 있다.

2. 중국의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 노력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 이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방향을 설정하면서 경제 규모 세계 6위, 구매력 기준 세계 2위라는 엄청난 경제발전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발전의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성장 동력은 다름 아닌 고등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한 양질의 우수한 인력 양성 정책이었다. "일류 대학 건설"과 "과교흥국(科教興國)"의 구호 아래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대학경쟁력 강화 노력은 '211 공정', '958 공정', '2003~2007년 교육진흥동계획', '111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일관성 있고 과감하게 추진되고 있다.

1995년에 발표된 '211 공정 총체건설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된 '211 공정'은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여 100여 개 대학과 800여 개 중점학과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 수준의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다수의 거점대학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211 공정' 1기인 96년~2000년까지 25개 대학, 300개 중점학과에 137억 위안(약 2조 원)이 투입했다. 이 기간 5년 동안 중국 정부는 교육예산을 매년 1%씩 상향 조정하였다. 이어 2기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95개 대학, 800개 중점학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6).

'985 공정'은 1998년 강택민 주석이 복경 대학 개교 100주년 행사에서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창한 이래 당, 국무원, 교육부, 각 지방정부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 '소수정예 원칙'에 입각하여 중점 지원을 하는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즉, '985 공정'에서는 대학 구조 조정, 우수



교수진 확보, 연구능력 제고 및 산학연 진흥 등을 대학경쟁력 강화 주요 방안으로 설정하고, 특히 '일류 대학'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다. '985 공정' 사업은 1998~2002년까지 1기 사업을 마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2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공정 초기인 1999년에는 대학평가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된 칭화대, 북경대, 난징대, 후단대 등 9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현재는 35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985 공정' 1기 사업 기간 동안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는 칭화대, 북경대에 18억 위안을 지원하였으며, 난징대, 후단대 등에도 6억~12억 위안을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전국 총 733개 대학을 합병에 참여시켜 288개의 합병대학으로 출범시키는 대학구조 조정의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中國教育部. <http://www.moe.edu.cn>).

2003년 원자바오 국무원총리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진흥행동계획'은 중국의 주요 대학을 세계 일류 대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수준급의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미국 등 각국의 저명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 및 연구를 맡게 하고, 유능한 교수를 선발하여 하버드, MIT 등에 보내 최신 학문의 흐름을 배우도록 한다"는 최정에 교수진 확보 및 활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심 인력 양성 방안이다. 이러한 교육진흥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중국정부는 '고등교육기관 학과 혁신 및 우수 인재 유치기지(基地) 관리 방법'을 골자로 '111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111 계획'이란 세계 100위권 이내에 드는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우수한 학과에서 대가(大家)급에 속하는 학자와 중견 연구 인재 1000여 명을 스카우트하여 중국 주요 대학의

100여 개 학과에 배치하여, 이들이 배치된 학과를 혁신기지로 삼아서 중국 대학의 과학·기술 혁신능력과 종합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지로 선정된 100여 개 학과는 반드시 10명 이상의 해외 인재를 초빙해야 하며, 그 가운데 1명은 '대가'급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111 계획'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 인력은, '대가'는 해당 학문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저명한 학자를 말하며, 공인된 학술적 성취를 가진 '대가(노벨상 수상자 등)와 '중견 연구 인력' 등이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대가'는 연령을 70세 이하, 중견 연구 인력은 50세 이하로 연령 제한하고 있다. '대가'의 경우 1년에 최소한 1개월 이상, '중견 연구 인력'은 3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조건이다. 가장 핵심적인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여비와 특별수당, 주택,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파격적인 조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홍원일, 2006).

이상에서 살펴본 '211 공정', '985 공정',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 '111 프로그램' 등은 대학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중국 대학경쟁력 강화 노력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1차 5개년 계획(規劃)' 기간의 핵심적인 정책 과제인 '111 프로그램'은 기초과학·기술·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Made in China'를 'Made by China'로 탈바꿈시켜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보다 야심찬 대학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 노력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은 21세기 지식기반경



제에 있어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인식 아래 우리나라도 양질의 인력 확보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인력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왔다. 교육예산은 2001년 21.7조 원 규모에서 2006년 29.2조 원 규모까지 연평균 6.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6년간 교육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에서 고등교육 부문이 6.8%로 가장 높았다(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 8). 예컨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대학구조 개혁 지원 등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 결과가 고등교육 부문에 투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20년 후 한국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구호 아래 추진된 한국의 ‘BK21 사업’은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BK21 사업’을 통해 1조 4000억 원을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에 투입했다. 그 결과 비록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6만여 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 학생들을 지원, 현재 각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핵심 인재들을 키워 내는 성과를 낳았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21 사업’에서는 1단계 ‘BK21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및 수월성 원칙에 근거하여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국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지원방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연구중심대학과 지역 혁신을 선도할 지방 특성화 대학들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44개 사업단, 325개 팀의

핵심 인력 2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매년 2,900억 원, 총 2조 10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방침이라 한다(2006~20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2006 : 11). 앞으로 7년간 전개될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 바이오(BT), 나노(NT), 로봇(RT), 정보통신(IT) 등 10~20년 후 한국이 ‘먹고 살’ 산업 분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대학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 출연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또는 통합 방안 등 산학연 협력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에서는 수도권 74개교 중 비교우위 30개교를 선정하여 6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으로 131개 사업단, 109개교(전문대 32개교)에 학생 17만 명을 대상으로 2,59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정원 감축 및 학과 재조정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학내 강점 분야로 자원 집중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5개년 계획(2005~2009년)을 2004년 12월에 확정 발표한 이래 2007년 현재 국립대 통·폐합 5개 대학, 사립대 통·폐합 2개 대학 총 7개 대학을 통·폐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 통·폐합 대학 및 구조개혁 선도 대학 10개교에 대해 2006년 700억, 2007년 6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2007년도 교육예산 편성 발표 보도 자료 참조).

또한 정부 주요 부처의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HRD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관련 사업은 산학연관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학경



〈표 2〉 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 정책

국가	주요 정책	대학교육 개혁 방향 및 주요 성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신생 플랜 국립대 독립법인화 : 도야마 플랜 COE 프로그램 대학평가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대학을 민간 경영원리의 도입에 의한 법인화로 전환 101개 국립대학 89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 대학의 新산업 창출 역할 강화(세계 수준의 전문가 육성) 대학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 정비(대학평가 의무화) 대학평가에 기초한 경쟁원리의 철저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1 공정 958 공정 교육진흥행동계획(2003~2007) 111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일류 대학 건설 프로젝트인 '211 공정'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 100개 대학과 800여 개의 중점 학과를 집중 육성 추진 '211 공정' 추진 이후 대학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 순위를 공개하고 일류 대학 선정 '958 공정'을 통하여 소수정예 원칙에 입각, 34개 대학 지원 중점 육성 추진 '958 공정' 대학 구조 조정 성과 : 733개 대학을 합병에 참여시켜 288개의 합병대학 출범 - 종합대학 지향 2003~2007 교육진흥행동계획 구현을 위한 '111 프로그램' 추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BK21 사업 NURI 사업 대학구조개혁 5개년 계획 (2005~2009)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중심대학 육성 - 우수 연구인력 양성 - 고급 전문 서비스 인력 양성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지방대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국립대 5개 대학, 사립대 2개 대학 총 7개 대학을 통폐합 대학에 의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연구센터 기능 및 기술이전·지도 강화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부처별 HRD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부 562억 원, 교육인적자원부 8,367억 원, 산업자원부 1,102억 원, 정보통신부 1,078억 원, 노동부 9,349억 원으로 약 2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 36). 그리고 신기술 개발 사업으로 과학기술부의 21C 프론티어 사업(ERC/SRC, RRC 등), 산업자원부의 중기 거점·공통핵심기술 개발 사업,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정보통신부의 선도 기술 개발 사업 등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

Ⅳ. 동아시아 국가의 대학개혁의 성과와 대학평가

이상에서 살펴 본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지식기반사회의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개혁의 방향과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한국·일본·중국 3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의 방향은 놀랍도록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은 세계적인 대학 육성을 기치로 우수인력 양성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3국 공히 우수인재 양성에 국가경쟁력이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통·폐합 추진도 공통점이다. 한국이 1999년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K 21사업'과 중국의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해 중점학과를 집중 지원 하는 '211 공정', 1998년부터 칭화대 베이징대 등 소수 정예 대학을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958 공정', 그리고 두 나라 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일본이 2002년부터 세계적인 연구교육거점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COE 사업'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재정지원에서는 한국이 3국 중 상당히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에 투입된 1단계 BK21 사업의 60%를 받은 서울대는 여전히 세계 100대 대학 순위에서 중국과 일본 선도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IMD 조사에서도 고등교육 경쟁력은 60개국 중 52위를 차지해 우리나라 대학들은 여전히 국내용 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경쟁력 강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지원과 평가가 연계되지 않아 경쟁 분위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학평가 법제화와 일본의 제3자 인증평가 도입은 시급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8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대학평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교육 여건 개선과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 대학평가의 법제화, 규범화, 과학화 부문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1998년 8월 29일)' 등 중국의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법에는 "대학의 교육 수준, 교육의 질은 교육행정 부문의 감독 부문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학평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4장 제23조, 제44조). 이에 근거하여 중국에서는 '신설 대학 합격 평가', '학부 교육 수준 평가', '대학원 학문 분야 순위 평가', '우수대학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다. '958 공정'으로 집중투자되고 있는 소수 정예 우수 대학의 선정도 '211 공정' 과정에서 실시된 대학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종래의 학위 인정 수여기구에 대학 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독립 행정법인 형태의 국가기구로 대학평가·학위 수여기구(NIAD-UE :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valuation)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학교법 제2조를 개정하여 대학자체평가와 제3차평가를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대학의 자체 진단 및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학생 및 기업체들에게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COE 사업단 선정과 관련 분야별 제 3자 평가를 실시하여 그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제3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체 대학의 5%에 해당되는 30개 대학에 대한 중점 투자를 하고 있다. 즉, 오늘날 일본은 대학평가에 근거한 철저한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대학평가를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를 대학 경쟁력 강화로 발전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더이상 대학평가가 자율적 질 관리라는 소극적이고 수세적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글로벌 대학경쟁력을 지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를 추월한 중국 역시 대학평가를 기제로 하는 경쟁원리에 입각



하여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대학평가에 대한 준비의 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거나, 학회가 중심이 되어 해당 학문 분야 평가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평가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학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커다란 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평가의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평가를 글로벌 대학경쟁력 기제로 삼기 위해서는 대학평가 결과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생산적 활용 방안 마련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역사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천하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일 수는 없다. **대학교육**

〈참고문헌〉

- 고 전(2002). **일본교육개혁 흑·백서**. 학지사.
-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작업반(2006).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5). **제2차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상공회의소(2006). **주요국의 교육 혁신 동향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 어윤대(2003). 대학경쟁력, 국제화로 승부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유현숙 외(2005). **고등교육개혁의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혁(2006). 21세기 고등교육의 '새로운 도약'. **교육개발 157호**.
- 홍원일(2006). 중국 고등교육 개혁 : 111프로젝트. 중국교육부 자료(미간행 번역물).
- 日本 經濟生産性(2003). **大學平價手法(本編)**.
- 日本文部科學七省(2006). **文部科學白書**.
- 日本文部科學省. www.mext.go.jp
- 中國教育部. <http://www.moe.edu.cn>
- 상하이 교통대. <http://ed.sjtu.edu.cn/ranking.htm>
- The Times(2006). *Higher World University Rankings*.